

원룸촌 간격 좁아 사생활 노출 무방비

주민들 '소음·일조권 침해' 각종 생활민원 호소 '주거환경 악화' 건축법 개정 등 법규 정비 절실

최근 광주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건물과 건물간의 사이가 너무 비좁아 생활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지역 일선 구청 및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지역 북구·광산구·서구 등 대학가 주변이나 상업용지 밀집시설

에 인접한 전용주거지역에 원룸을 찾는 수요가 점점 늘면서 5인 이하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다가구 밀집 지역 등 원룸촌의 주거환경은 나빠져 수준이다.

현행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5인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50cm 규정에서 불과하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규정상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거환경으로 사생활 노출문제 및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원룸밀집지역은 건물들이 앞뒤로 들어서 있거나 창문 역시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힘든 실정이다. 특히 빼곡히 붙어있는 건물 탓에 일조권 문제까지 심각하다.

이곳 원룸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 모씨(27)는 "주민들의 주거형태 변화에 맞춰 관련법도 보완돼야 한다"며 "원룸단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의 대응정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김 모씨(29)도 "원룸촌 대부분이 창문도 마음껏 열지 못할 정도로 건물들이 붙어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은 건축물 신축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학가를 비롯해 관내 상업용지 밀집지역엔 원룸건축법이 일면서 당분간 신축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거주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까지 예상됨에 따라 생활환경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2년째 원룸생활을 하고 있는 심 모씨(32)는 "집안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어도 바로 눈앞에 건물이 붙어 있어 공기 닫고 생활한다. 최근엔 건너편에 신축원룸이 공사에 들어가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등은 다가구주택 공간확보에 관한 규제를 좀더 강화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거주민들의 생활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건축승인 허가가 떨어졌고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0~25	흑산도	17~23
담양	10~26	구례	8~25
화순	10~25	곡성	8~24
영광	10~26	완도	15~24
함평	12~26	강진	10~25
무안	12~25	장흥	9~24
영암	9~25	해남	8~25
진도	12~25	고흥	13~24
신안	13~25	보성	7~23

일출 06:29 일몰 18:13
월출 00:38 월몰 15:07

목포	만조 09:02 22:07	여수	만조 04:35 17:29
	간조 02:27 14:35		간조 10:34 23:5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주유비 '떡튀'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 시속 160km로 도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도주극을 벌이다 긴급대기 중인 순찰차를 들이박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순천 승주-주암 방면으로 빠지는 국도를 지나가던 김 모씨(36)는 기름이 바닥나자 승주읍 한 주유소로 들어갔다.

기름을 넣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영화에서처럼 주유 후 도주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유소에 들어선 김씨는 직원에게 "5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계기판에 5만원이 뜨길 주시하던 김씨는 주유구가 닫히는 순간을 기다렸다 전력질주했다.

업주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김씨를 뒤따르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자신의 뒤를 쫓는다는 걸 인지한 김씨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20여분간 최고속도 시속 160km를 넘나들며 아찔한 도주극을 벌였다. 김씨의 도주극은 곡성 부근에서 종말을 고했다. 때마침

범행장소 인근에서 순찰을 돌던 승주파출소 소속 B경위(50)와 C경위(45)는 순찰차 무전 너머에서 들리는 용의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위치한 장소는 순천경찰이 예상한 김씨의 도주경로구간이기도 했다. 갓길에 순찰차를 대고 백미러 너머로 용의차량을 의심되는 오피러스가 눈에 들어왔다.

김씨는 갓길에 주차된 순찰차량을 발견,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생각에 순찰차 뒷범퍼를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췄다. 김씨와 B경위, C경위 모두 가벼운 타박상으로 큰 부상사고로 이어지는 양상이었다.

경찰에서 김씨는 "돈이 없는데 차량 계기판에 기름이 바닥난 것을 알리는 신호가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을 따돌려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순천경찰은 3일 김씨에 대해 사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코스모스 보러 오세요"

3일 오후 광주·전남지역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코스모스가 만개한 광주시 첨단지구 영산강 유역에서 시민들이 한가롭게 산책을 하며 가을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태규 기자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

복역 18년만...재심공판 광주지법 해남지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다면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고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바닷가 승용차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

여수 바닷가 선착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바닷가 선착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김 모(32)·이 모(30)·박 모씨(22)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3명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목포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돌진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해 9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박 모씨(66)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가 경상을 입었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9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결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행 중이던 박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려던 손 모씨(67)의 차량과 부딪힌 뒤 주차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동균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다스코이주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세라코이주** Ceramic Eco-Business Road Safety Architecture Co., Ltd.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사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담당자 02)3440-7842, jykyang@dasco.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R&D	
세 라 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R&D	

※ 접수문의: 담당자 06)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